

광주시 도시가스 인상 '업체 봐주기'

참여자치21 "선 인상 후 승인·감사결과 발표 전날 인상" 시 "산업부 규정대로 인상액 적용...감사발표일은 몰랐다"

광주시가 가계부담의 원인 중 하나인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일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1.76% 인상한 뒤 나흘이 지난 7월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가결했다. 요금부터 올리고 사후 승인을 하는 '선 인상 후 승인'인 셈이다.

더욱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감사원이 해양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170억원의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 감사발표 전 기 승인상한 것 아니냐는 정황상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2개 광역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55억 원을 공급설비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5867억 원만 투자했다.

2588억원을 적게 투자하고도 845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속인 뒤 이를 근거로 가스비를 인상시켜 17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과다

계상된 금액만큼 이득해 조정 반영 했으나 광주시는 오히려 해양도시가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금을 인상했다.

위원회 승인도 뒤늦게 거치고 그나마도 감사원 발표 전날 회의를 소집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참여자치21 측은 "어쩔 수 없이 시민 대부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도시가스는 공공재로 힘든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인데도 시는 수수방관도 모자라 해양도시가스를 편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를 재심의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업부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에 조정'이 있는 경우 매년 7월1일 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6일부터 인상한 것이고, 감사결과 발표일 하루 전에 가결한 것은 감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다계상된 금액 감액 조정에 대해서는 "투자비 정산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정산근거가 없고 계획보다 더 투자할 경우에는 이득해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의대로 정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환청 시달리다 빈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환청에 시달리다 빈집에 불을 지른 5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8분께 목포시 서산동 한 빈집에 라이터와 휴지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빈집 80㎡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주택가는 재개발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에 3급 판정을 받은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시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불을 질러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을 거닐던 김씨로부터 "불을 질렀다"는 말을 듣고 추궁 끝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5년 전부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입원 조치할 방침이다.

골프연습장 샤워장서 잇따라 감전사고

경기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 샤워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전에도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3건이나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골프연습장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모 골프연습장 샤워장에서 박모(56)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박씨는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머리 후두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유족 측은 단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그러나 박씨의 사망사고 이틀 전에도 감전사고를 당했다며 A(49)씨가 골프장 업무를 고소하면서 박씨의 사망사고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족 측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전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박씨가 사망한 샤워장 내 설치된 온수기 감식 결과 누전으로 판명됐고, 경찰은 전기안전공사와 설치 업체 측으로 부터 온수기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후 해당 골프연습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탐문을 통해 최근 3차례나 감전사고가 있었던 것까지 확인하면서 골프연습장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환각상태로 경찰 지구대 찾아간 40대

미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황실수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A(48)씨를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부산 동구 자택에서 1회 투약분의 2배인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다음날인 11일 오후 환각상태로 자택 인근 초량지구대를 찾아가 황실수색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하고, 간이시약검사를 통해 미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술 마시고 역주행' 1명 사망·1명 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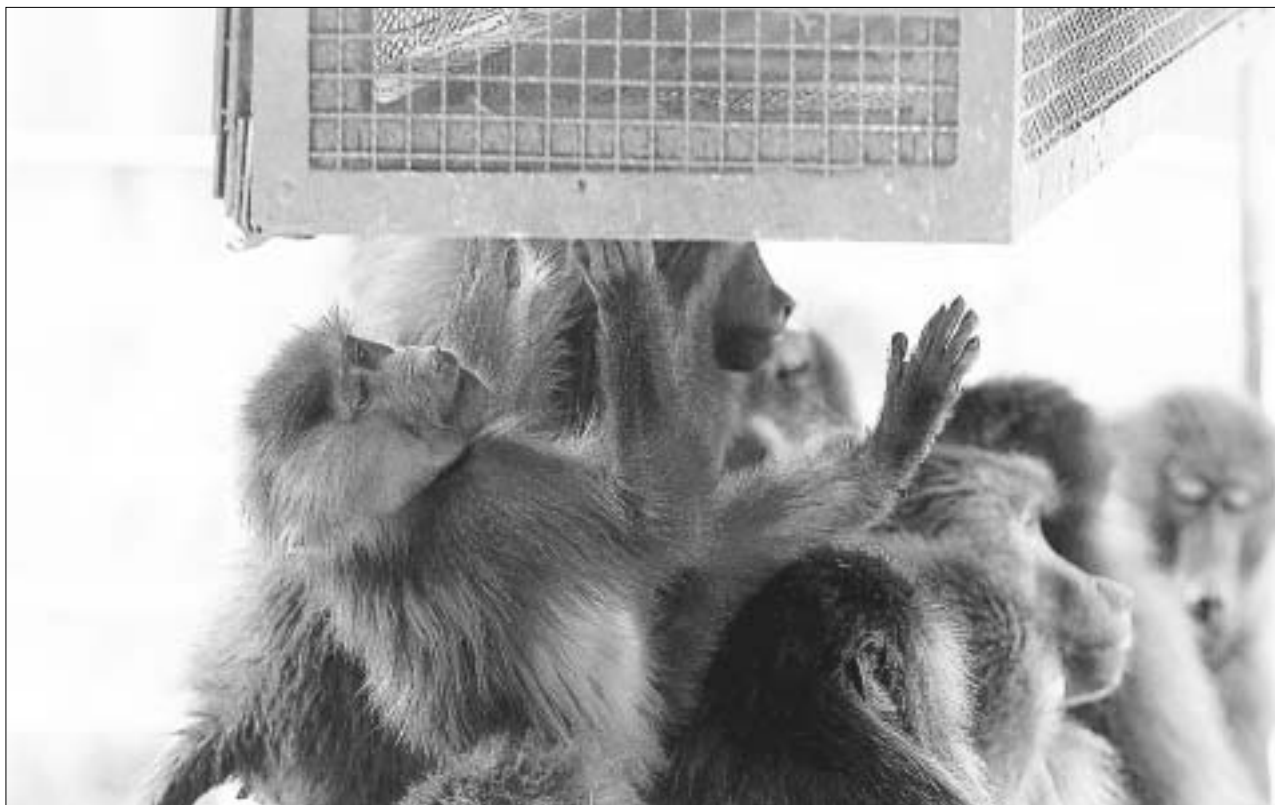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한 A(35)씨가 중상을 입고,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승합차 운전자 B(49·여)씨가 숨졌다.

사고는 A씨가 중앙차선을 넘어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파속 원숭이의 겨울나기 한파가 이어진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망토원숭이가 난로 아래 모여 추위를 피하고 있다.

'사람뿐 아닌 돌덩이' 너릿재 5·18 암매장 유해 못찾아

오늘부터 옛 광주교도소 내 발굴 조사 재개

옛 광주교도소와 함께 가장 유력한 5·18민주화운동 암매장 추정 장소로 지목됐던 전남 화순군 너릿재 인근에서도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4일 너릿재터널 인근 도로와 너릿재공원 주차장 등 2곳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였으나 암매장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지하 60cm 깊이(기반토와 도로 기반층의 경계선)에서 사람 두개골과 비슷한 반사파 현상이 감지됐던 터널 주변 도로기에서는 암석과 돌덩이가 나왔다.

너릿재공원 주차장도 지하 1m 가량 파내려갔지만 암석층만 확인했다.

김양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땅속탐사레이더에 잡힌 이상 신호는 결국 불규칙한 암반이었던 것 같다"며 "실망스럽지만, 행방불명자들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발굴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어 "너릿재는 암매장과 관련해 굉장히 다양한 제보가 있는 곳"이라며 "7공수가 주둔했다. 그들의 제보와 증언이 필요하다"

최남규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